

EBS 영어 후기 및 방향성, 그리고 공부 방법

-승동-

EBS가 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이 감수하는 교재인데 난이도가 저러면, 쉬운영어로 간다는 소리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저 답은 틀렸습니다.

왜냐면, 이미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귀납적으로 EBS는 그 전 해 수능의 난이도를 따르기는 하지만, 수능 난이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쉬운 지문들이 연계되면 쉬워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EBS의 난이도로 쉬운 수능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예로 EBS는 매우 어려웠지만, 수능은 정말 쉬웠던 12수능(1컷 97)이 존재합니다. 또한 14 수능 B형도 변별력을 갖추겠다고 했고(1컷 93. 상위표본 60~70% 응시), EBS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EBS만으로 난이도를 속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 상위권들은 EBS만 하면 될까요?

제 답은: 그래도 되고, 아니여도 됩니다.

3월에 정확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수능이 쉬워지고 있는 기조로 가는건 맞습니다. 물론 올해 국어B형처럼 어렵게 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확답을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어는 영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EBS가 기억나는 이유는 다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EBS를 읽을 수도 없는데 외운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기억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선 절대적인 영어 내공을 키워야 쉬운 영어라도 안정적으로 100점을 맞을 수 있고, 행여 어렵게 나오더라도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상위권이 공부를 하는데 요령을 피우는 것은 경제성이 아니라 합리화입니다.

영어는 영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15수능의 3등급 커트라인부터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EBS도 영어입니다. 다독하고 구문과 어휘, 주제를 완벽하게 잡아낸다면 결국 영어공부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해석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특강은 상당히 쉬워졌기 때문에, 더 어려운 지문들을 공부하는 것 역시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해지지 마십시오. EBS는 정부가 발표한 시험범위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언젠가 발목을 잡히게 되고, 그것이 수능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3. 하위권에게는 기회

저는 오히려 쉬운 EBS에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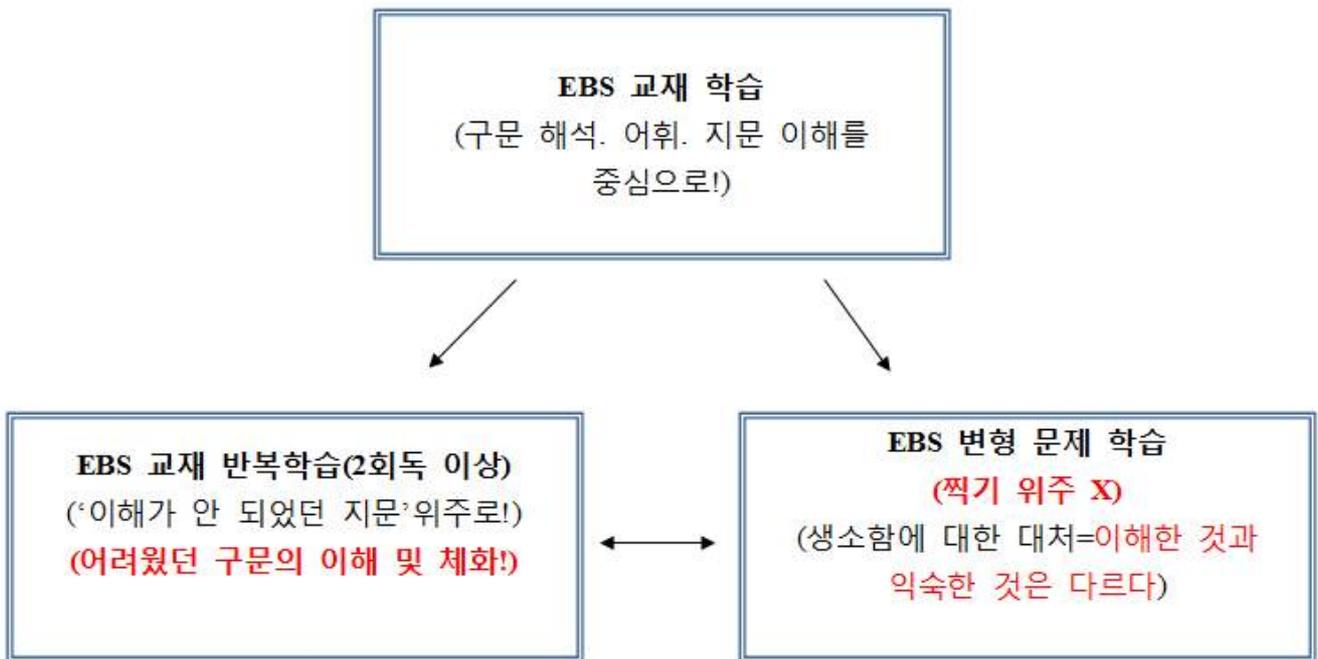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EBS는 저렴한 값 및 무료 인터넷 강의에도 불구하고 하위권들이 공부할 수 없게 난이도로 진입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EBS 자체가 그 진입장벽을 무너트린 지금, 여러분들은 역전의 기회를 지금 잡은 겁니다.

설령 수능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공부한 내용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으며 공부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점이 큼니다.

TOPIC 2: EBS는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

*작년 글과 내용상 거의 동일합니다.



위 사진은 제가 생각하는 EBS의 학습 방향입니다.

맨 처음 EBS를 학습할 때는 한 지문 한 지문을 정독하면서 풀시다.

문제 자체도 괜찮은게 많고(좀 오버도 있지만), 지문 난이도도 낮은 편은 절대 아닙니다.

그 후 EBS를 반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N회독이라고 합니다. 수험기간에

누구는 EBS 2회독을 했다 3회독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EBS n회독의 목적은 **지문 기억 및 자신이 이해가 잘 안된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문표현 속지**가 목적입니다. 어려운 구문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장에서 해석이 막히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한 내용 이해를 통해 일부 연계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변형문제를 푸는 취지: 익숙한 것과 이해한 것은 다르다.

여러분이 n회독의 관성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변형문제집을 푸는 것도 좋습니다. 적중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고급 공부 관점에서는 적중보다 실력 상승을 목표로 푸시고, 그 과정에서 적중이 되면 더 좋은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게 편합니다. 또한 이비에스는 변형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변형 문제를 풀면 자신이 지문을 이해했는지 혹은 n회독을 통해 익숙한 상태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형 문제에 대한 고찰은 이 글이 아니라 다음에 제대로 다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지문을 공부해야 되는가?

1- 문제를 푼다.

지문을 푸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평가원의 코드와는 조금 동떨어진 문제들도 하나 두개씩 존재하지만 이비에스의 문제 자체는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일부 수험생 분들이 지문이 중요하다고 지문을 읽기만 하고 문제는 풀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영어 영역에서 문제를 푸는 것도 실력 상승의 길 및 연습의 길이 된다는 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BS를 시간을 재고 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하위권이고 구문 학습조차 제대로 안되어있는데 시간 훈련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찍기만 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위권이 아니고 중상위권 이상(3등급 이상)이라면 시간당 문제 풀기, 혹은 8문제에 20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2-지문을 구문분석하며, 이해한다.

구문 분석을 한다는 것을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면

- 1) 풀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느껴진 구문을 다시 '정확히 해석'해보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는가?
- 2) 의미는 어중간하게 들어오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진 문장인가?

를 초점을 맞추어 훈련하셔야 합니다. 1)의 경우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구문은 형광펜을 친 다음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EBS 구문을 다시 읽어봤을 때 해석이 버벅되고 문법 성분을 잘 찾지 못했다면(16대비 EBS 교재는 이런 점에서 진

입 장벽을 많이 낮췄습니다)

- 1: 수식 관계를 자신의 구문적 지식 및 교사/강사의 도움을 받아 점검
- 2: 해석해보기
- 3: 형광펜 한 뒤 다음 복습 혹은 다음 ebs 교재 내부의 소단원을 나갈 때 복습

의 절차를 공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 어휘 암기 및 지문 내용 이해

어휘 암기는 필수적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어휘를 간단한 노트에 적고 누적해 암기하는 형식을 따르되, 사전을 꼭 찾아봐 예문 등을 보고 실제로 이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지,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는지 학습해 보는 것도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ge라는 어휘가 있다면 단순히 노트 등에 'age-n. 나이' 를 적는 것이 아니라 'age-1. n.나이 (ex: What is his age?)

지문 이해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시험장에서 ebs 연계 교재가 나왔을 때 정확히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단축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일부 변형될 적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식하게 암기하지는 마시고 '독해를 통해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의 훈련'을 공부 과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심경 문제로 출제된 문제의 경우에는 내용이 변형된 사례도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빈칸추론의 경우 주제를 check해보라는 학습지침서가 있습니다. EBS교재도 공부할 때 주제문에 밑줄을 쳐보거나, 주제문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실험 지문 등일 경우 실험 절차를 간단하게 서술해 보는 연습을 틈틈히 해보세요! 비문학의 요약정리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의 체계화'입니다. 머리속에 붕 떠있는 지식의 표상들을 글로 적어내는 과정에서 구체화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답지의 주제문과도 비교하여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예년 교재의 경우 뒷 부분 주제가 매우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던 지문들도 존재합니다.)

EBS 다독 = 고득점 인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선에서는 비례하지만, EBS n회독=만점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BS를 올바르게 공부하는 과정을 했다면 EBS를 정확히 보고, 또한 중간에 어법적 지식을 완벽히 정리하고 평가원의 CODE에 맞춰 문제 푸는 절차를 점검해냈다면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수기에서는 'EBS만을 N회독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능에서 만점을 맞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EBS를 아무 생각 없이 n회독 하면 연계지문에서는 유리해지지만 비연계 지문을 풀어내는 구문적 능력 및 이해력을 키워낼 수 없으므로 결국 만점을 맞지 못하거나, 혹은 실전 연습등의 멘탈 관리가 안되어 있으면 한 문제에 말려 안정된 상황에서 풀어낼 수 있는 나머지 문제들도 틀리게 될 것 입니다.